

복지부 “총선 전까지 의대정원 학교별 배정 마칠 것”

박민수 차관 “2~3월 학교별 정원 배분 완료...의대증원 발표 선거용 아냐” 대한의과대학·의대협 임시총회, 광주·전남의사회 등 쫓기대회 동참 할 듯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쳐 총선 전에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와 관련해서는 “집단행동 등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4월 전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4월 전이나 3월이 될 수도 있고 2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선거(총선)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학교별 의대 정원은 총선 후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증원 폭이 예상보다 크자

선거 전 마음을 산 뒤 의사들과 타협해서 증원 폭을 줄일 것이라는 추측이 일각에서 나왔는데, 이를 불식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도다.

한편, 박 차관은 전날 밤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임시총회와 관련해서는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이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집단행동의 방법에 대해 사전에 대응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후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사실을 발표했다. 집단행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과 관련해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이)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사들에게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라는 명분에 ‘의사 달래기’라는 의도를 담은 의료 관련 패키지 정책을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는 13일 오후부터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전남도의사회 등 전국의 지역별 의사회는 대한의사회가 추진하는 전국 동시대발 쫓기대회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도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2일 열린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박민수 차관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 13일 오후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보호차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사회는 15일 오후 6시 광주 서구 지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쫓기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의사회는 1시간 동안 집회를 열면서

자유발언을 할 방침이다. 집회 참여 인원은 1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 “尹, 호남서도 민생토론회 열어야”

“영남·충청서만 토론회 개최 호남패싱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국대 감독에 광주FC 이정호 추천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남·충청 등 민생 토론회 개최 계획과 관련해 ‘호남 패싱’ 등을 거론하며, “호남 민생도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영남, 충청권에서만 민생 탐방을 할 게 아니라 호남 민생도 민생인 만큼 광주·전남도에도 와서 인공지능(AI)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지역 건설회사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윤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하지 않은 채 총선을 앞두고 부산처럼 표가 있는 데만 가면 호남

패싱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영남과 충청에서만 민생 토론회가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면 호남 패싱이자, 자칫 선거 개입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지난 12일 “실 연휴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오로지 민생’이라는 각오로 영남·충청 등 전국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며,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도 11번째 민생 토론회”라고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의 전국 방문과 관련, 광주시는 지난해 부터 올 초까지 수 차례 윤 대통령을 초청해 북구 첨단 3지구에 조성된 AI 데이터센터 개관식을 개최해 왔으나 무산됐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차담회에서 흥준표 대구시장이 촉발한 축구 국가대표팀 워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촉구에 가세해 광주FC 이정호 감독을 후

임자로 추천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클린스만 감독은 시민에게 레드카드를 받았고 (‘아시아컵 이후’) 미국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름 되면 흥준표 시장이 말한 것처럼 바로 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 프로축구단 광주FC 구단주이기도 한 강 시장은 “다음 달 2일 광주FC 시즌 개막전 전에 양해를 구해 이정호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보내면 좋겠다”고 추천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손흥민, 이강인 등 쟁쟁한 선수들이 있는데도 무기력하게 게임을 전개한 것은 감독 책임”이라며 “지나해 K리그에서 팀을 3위로 끌어올린 이정호 감독은 클린스만을 능가할 전술을 갖고 있고 무명 선수를 데리고도 공격 축구, 재미있는 축구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소년 100원 버스’, 전남 곳곳 누빈다

목포·여수·화순 등 14개 시·군서 시행...완도·신안 무료

지난 2019년 광양과 고흥을 시작으로 도입된 ‘청소년 100원 버스’가 5년 만에 14개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전남지역 대표적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소년 100원 버스를 도입한 시·군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담양, 고흥, 보성, 화순, 강진, 영암, 무안, 진도, 완도, 신안이다. 이 가운데 완도와 신안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100원 버스는 거리에 상관없이 교통카드로 100원만 결제하면 해당 지역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잡한 절차 없이 학생용 교통카드를 구매해 청소년 할인등록만 하면 된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가계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 부담을 확 줄여주며 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대표적 교통복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순천시는 2021년부터 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998만명의 청소년이 82억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렸다. 목포시에선 2022년 10월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320만명의 청소년이 34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청소년 버스 이용객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청소년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 완화로 도민의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 타 시·도에서도 도입을 추진하는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국가장학금 ‘대학생 80%’까지 확대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대학생들에 대한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20대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대학

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13일 복수의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엔 등록금 전액,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원을 지원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수혜 대상을 늘려 가고 있다. 이렇게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명 가운데 약 100만명 정도다.

정부는 연 1조5000억~3조원을 추가 투입해 장학금 수혜 인원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선까지 늘리고, 장학금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한도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반려동물과 살기 좋은 전남 테마파크 등 9개 사업 추진

테마파크, 동물보호센터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을 위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과 직영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에 68억원을 투입,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반려

동물 테마파크 건립 ▲동물보호센터 이전·설치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3억원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해남에 들어서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으로,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입양홍보실, 산책로 등을 갖춘 시설로 만들어진다.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2026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데 전남도는 올해 3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직영 동물보호센터도 담양·곡성·진도에 설치하고 기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30억원을 지원한다. /김지수 기자 dok2000@kwangju.co.kr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종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태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필드 매니저 교육생 모집

서진그룹 엘리체 필드 매니저(캐디) 교육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인원	- 40명 ~ 50명, 남·여
교육비	- 없음, 교통비 본인 부담
교육기간	- 30일, 단기숙성코스
취업	- 수료후 100% 취업보장 - 화순, 함평 엘리체골프장
수익	- 월 300~500만원 - 능력에 따른 차등 수입
특전	- 교육원 수료증 수여 취업후 숙식 제공 - 화순, 함평 엘리체골프장

· 모 집 기 간: 2024년 2월 5일 ~ 2월 16일까지

· 면 점: 2024년 2월 19일 ~ 2월 21일(3일간)

· 합격자통보: 2024년 2월 22일

·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본 각 1통

· 교육장소: 이론교육 - 광주본사, 실전교육 - 골프장

· 접수방법: 팩스(061-371-2580) 또는 방문접수

· 연락처: 061-320-7700, 061-373-7733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 합격자는 즉시 폐기 합니다.

서진그룹 엘리체 교육원장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수 11개, 히노키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가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발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회사분할 합병 및 건설업 양도 양수 공고

주식회사 풍원주조인정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천보건설(이하 “을”이라 한다) 2024년 02월 13일 현재 체결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로 “갑”은 토목공사(영동동번호: 제15-1225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지 아니하기로, 신안(신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풍원주조인정회사의 18도, 19도, 20도, 21도, 22도, 23도, 24도, 25도, 26도, 27도, 28도, 29도, 30도, 31도, 32도, 33도, 34도, 35도, 36도, 37도, 38도, 39도, 40도, 41도, 42도, 43도, 44도, 45도, 46도, 47도, 48도, 49도, 50도, 51도, 52도, 53도, 54도, 55도, 56도, 57도, 58도, 59도, 60도, 61도, 62도, 63도, 64도, 65도, 66도, 67도, 68도, 69도, 70도, 71도, 72도, 73도, 74도, 75도, 76도, 77도, 78도, 79도, 80도, 81도, 82도, 83도, 84도, 85도, 86도, 87도, 88도, 89도, 90도, 91도, 92도, 93도, 94도, 95도, 96도, 97도, 98도, 99도, 100도를 “을”에 양도한다. 또는 각 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의 주권을 제출하여 주권이 박탈된다.

0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토목공사(영동동번호: 제15-1225호)

02. 양도대상일: 2024년 3월 15일

03. 이대법원의 위임장: 2024년 2월 14일

· 기 간: 2024년 2월 14일 ~ 2024년 3월 15일

· 제출처: 본사

“갑”인정: 주식회사 풍원주조인정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경면 1길 65-13, 2층
대표이사 윤미선 (061-332-3070)

“을”인정: 주식회사 천보건설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낙동원로 111, 1층
대표이사 권상주(061-363-6490)

2024년 2월 14일
(양도양수조인정대표이사 윤미선)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양 한상옥(20615-1XXXXXX)
- 최후주소: 광주 서구 칠성로52번길 6, 203호 (유촌동)

피상속인 양 한상옥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원인 2024-단3021호로 신청하여 2024년 2월 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 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2월 14일

- 상속인: 한송희(330510-1XXXXXX)
- 나주시 노안면 월곡성산길 86
- 신고기간: 2024. 2. 14. ~ 2024. 4. 25.
- 채권신고처: 상속인 한송희의 주소

분실공고

- 분양계약서: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 30번지 한국 아텔리움 동구뉴시티 101동 1405호
- 계약자: 이 항 미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4년 2월 14일